

지역과 지방

Region and Regionalism

장남수 / 울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by Chang Nam-Soo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지방시대니 지역문화니 하는 낱말은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고 또한 그런만큼 습관적으로 회자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되새겨 보면 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지역'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는 경우(예컨대 지역운동)와 '지방'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는 경우(예컨대 지방대학)가 때에 따라 각기 다를 뿐 아니라, 후자는 어딘지 모르게 촌스럽고 덜 세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사전상으로 볼 때 지역과 지방은 엄연히 다른 낱말이다. 이것은 지역의 상대개념이 전국 내지 전체이고 지방의 상대개념이 중앙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람살이의 구체적인 터전을 놓고 따져 들면,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울산을 예로 들어보자. 울산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므로 엄연히 한 지역이지만 서울이라는 중심에 비하면 분명히 지방이기도 하다. 따져 보면 울산만이 지방이겠는가. 서울도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은 중심지에 비할 때 지방에 불과하다. 또한 뉴욕이나 LA가 서울 내지 울산에 대해 지방(변두리)으로 위치지워질 날도—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이겠지만—관념상으로는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울산, 서울, LA, 뉴욕 모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정 공간 즉, 지역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은 지구상의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개념이지만



포항시내 전경

지방은 타지역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따라서 일정한 '권력관계'를 함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의 복잡성이 더해지는 것은 지역, 지방이 지리적인 차원만을 지칭하진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지역과 지방의 문제에는 지리적인 차원뿐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이 복잡하게 착종되어 있는바, 성(性)·계급·인종·민족 어느 관점을 취하든지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의 문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나 지방이라는 화두는 대상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낱말이다. 평면적인 사고로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일감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굵직한 문제 중에서 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산불피해가 주변지역에 연무현상으로 확산되면서 일으키는 피해를 봐도 실감할 수 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한 회사가 망해서 공장문을 닫거나 역으로 공장을 특정지역에 새로이 짓는 문제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그 지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역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특정지역에 국한된 시야로는 타 지역이나 국가전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역과 지방의 문제가 각기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한 지역의 문제를 타 지역과 관계짓지 못하고 그 자체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발상의 다른 표현으로써 이야말로 평면적 사고의 한 전형인 것이다.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이 새삼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도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팽창과 함께 한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문학의 대가 중엔 잉글랜드 본토 출신이 아닌 작가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예이츠(Yeats), 조이스(Joyce)를 위시하여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출신의 많은 작가가 그들의 위대성을 인정받는 까닭은 이들이 자기 지방의 문제를 협소한 시야에서 다루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소화해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문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 소이는 자기지역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대한 치열한 관심이 이들의 창작에 뒷배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잉글랜드 본토 출신 중에서도 위대한 대가로 인정받는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빼어난 솜씨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의 특수한 문제와 그보다 넓은 범위의 보편적인 문제는 입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바, 우리가 지역과 지방의 문제에 새삼 스레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